



3대리구 농공성당 | 그림_서원만 베르나르도

2022 7월 31일
+ Bernard

대구주보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연중 제18주일 2022. 07. 31. (다해) 제2332호

제1독서 코헬 1,2; 2,21-23 화답송 ◎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제2독서 콜로 3,1-5.9-11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알렐루야. 복음 루카 12,13-21 영성체송 주님은 하늘에서 마련하신 빵을 저희에게 주셨나이다. 그 빵은 누구에게나 맛이 있어 한없는 기쁨을 주었나이다.

❖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무엇으로 채울까?



동인성당 주임 | 최호 요한보스코 신부

오늘 복음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유산을 제대로 나누어줄 것을 예수님께 요구한 사람, 그리고 창고를 새로 지으려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입니까? 유산에 대해 공정한 나눔을 원하는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정의롭다는 것은 '그의 것을 그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을 뿐인데, 잘못된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또 창고를 새로 지은 부자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 같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인데, 어디 하나 잘못된 점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각각 정의와 합리를 잘 지키는 사람일 뿐입니다. 결코 잘못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세상의 원칙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의와 합리를 잘 채워나가는 사람을 우리는 '열심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도 이 원칙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이상하게도 엄하십니다. 열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서는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어쩌면 그 어리석은 사람 중에 바로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야'하고 여러분을 꾸짖으십니다. 큰일입니다. 사랑이시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께서서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그것도 나를 포함한 나름대로 '열심한' 사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로 그것이 사랑이고, 부르심이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재물을 포함한 온갖 세상의 것들에 집착한 우리를 너무도 걱정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는 그것들에 얽매어 있는 우리를 오늘 복음 말씀으로 불러주시려 하십니다.

우리는 욕심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더 채우려고 합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편하게, 더 좋기 위해서 열심에 열심을 더합니다. 고민에 고민을 더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 욕심 때문에 언젠가부터 많이 지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비록 겉으로 보기엔 너무 단오하고 엄하게 느껴지지만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주십니다. 세상의 고민으로 지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채우려는 바로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안에 채워야 할 것, 바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서로를 위해 가진 것을 나누는 것임을, 바로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고민이 있으십니까? 하루하루 힘겨우십니까? 용기를 내서 조금씩이라도 그것들을 떨쳐 봅시다. 집착을 조금만 버려봅시다. 다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채워서 가지게 되는 것보다 내가 가진 것들로 너를 위해, 형제를 위해 나누어 채워주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위한 재산임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필문**

우찌야 (2열왕 15,1-7; 2역대 26,1-23)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강수원 베드로 신부

우찌야(기원전 781-740년 통치)는 남왕국 유다의 열 번째 임금입니다. 마태오 복음의 족보는 여호람이 우찌야를 낳았다고 기록하는데(마태 1,8), 이들 사이에는 삼대(아하즈야, 요아스, 아마츠야)가 누락되어 있습니다(1역대 3,11-12). 이들 세 사람은 올바른 경신례를 외면한 나쁜 임금으로 평가되는데(2열왕 8,27; 12,4; 14,4), 마태오는 이들을 제외하고 '14대(代) × 3'의 완전한 도식으로 예수님께서 '다윗(דָּוִד: 숫자로 14)의 후손'이심을 강조합니다.

우찌야는 '아자르야'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2열왕 15,1-2; 2역대 26,1-3). 유다 임금이 두 개의 이름을 가진 것은 흔한 일이었는데(예. 살롬/여호아하즈, 마탄야/치드키야), 아자르야는 본명이고 우찌야는 즉위할 때 얻은 공식 이름으로 여겨집니다. 우찌야('주님은 나의 힘이시다')와 아자르야('주님이 도우신다') 모두 '오직 하느님께 의탁하며 도움을 청한다'는 의미를 담은 이름이지요. 우찌야의 삶은 자신의 이름처럼 하느님께 의탁하여 크게 성공했던 전반기와(2역대 26,1-15) 그분을 저버리고 교만에 빠져 쇠락했던 후반기로(2역대 26,16-23) 나누어지는데, 이는 조상 다윗과 솔로몬과도 많이 닮았습니다.

분명 우찌야는 세 선왕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족보에 남을 만큼 유다 왕국에 찬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해상 무역을 활성화하고 목축과 농경을 장려하여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선왕 아마츠야가 전투에 패하여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국가적 위상을 회복하고, 필리스티아인들과 광야 부족들을 정벌하고 군대를 정비하여 나라를 군사 강국으로 만들었지요. 역대기 저자는 이 모든 성공의 이유가, '우찌야가 즈카르야의 가르침에 따라 하느님을 찾고 그분을 경외했기 때문'(2역대 26,5.7.15)이라고 단언합니다. 우리도 꼭 마음에 새겨야 할 대목입니다.

그러나 우찌야는 강해지면서 교만해지더니 하느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는 조부 요아스와 부친 아마츠야의 행태를 따라(2열왕 12,4; 14,4) 백성의 산당(가나안인의 우상 숭배가 행해지던 곳) 예배를 방관하였고(2열왕 15,4), 제 자신도 예배 규정을 무시하며 제단에서 향을 피우는 사제의 특권마저 가로채려다가 이마에 나병이 생기고 맙니다(2역대 26,16-19). 하느님 은총의 인호를 받는 부위인 이마에 외려 하느님 진노의 낙인이 찍힌 셈이지요(교부 키프리아누스). 우찌야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별궁에서 살다가, 부정한 이라는 이유로 임금들의 무덤에 영예롭게 들지 못하고 왕실 묘지에 딸린 터에 묻힙니다. 참 특이한 점은, 우찌야가 불운했던 긴 세월 속에서도 하느님께 치유와 자비를 청했다는 언급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왕 히즈키야(이사 38,1-8)와 이방인 장군 나아만(2열왕 5,1-18)을 치유하셨던 하느님께서서는, 우찌야가 당신께 자비와 용서를 청하며 원래의 신실했던 삶으로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반드시 치유를 주셨을 터인데 말입니다.

성공과 안정, 평화로운 일상이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더 이상 그분을 바라지 않는 나태함과 교만함을 가져올 수 있음을 기억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당장 건강의 회복이나 고민의 해결을 청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한편으로 '지금 이 고통이 나로 하여금 다시 하느님을 순수하게 찾고 그분 품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라고 마련해 주신 계기는 아닐까?'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요즘입니다. 매사에 혼자가 아니라 하느님의 힘으로 살아가길 청했던 다윗의 기도를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갑시다. "주 저희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이 저희에게 잘 되게 하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소서"(시편 90,17). **필독**

교황, 우크라이나 그리스-동방 가톨릭교회 주교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전하십시오”

2022년 7월 11일 바티칸뉴스 | 번역 이창욱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크라이나 그리스-동방 가톨릭교회 주교들에게 서한을 보내며 양 냄새나는 목자가 되라고 재차 당부했다. 우크라이나 주교들은 지난 7월 7일부터 오는 15일까지 폴란드 프세미실에서 교회회의(Sinodo)를 열고 시노드 정신으로 살아가는 교회라는 주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들이 모인 장소는 5개월째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키이우에서 프세미실로 옮겨졌다. 서한에서 교황은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에 대한 친밀함을 확인하며 기도를 약속했다.

교황은 지난 6월 27일 거행한 우크라이나 그리스-동방 가톨릭교회의 순교자들의 기념일을 떠올리며 현재의 분쟁이 공산주의 정권의 희생자인 사제, 남녀 수도자 순교자들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게 해준

다고 강조했다. 이 순교자들은 지난 2001년 우크라이나 사도 순방 중이던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의해 복자품에 올랐다. 이어 교황은 우크라이나 그리스-동방 가톨릭교회 주교들에게 “교회와 각 신자의 선익을 목표로 삼으라.”라고 격려했다. 아울러 교회는 특히 신자들을 동행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있어 “상호 도움의 자리이자 만남의 자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황은 지난 2019년 7월 로마를 방문한 우크라이나 그리스-동방 가톨릭교회 스비아토슬라프 셰브추크(Sviatoslav Shevchuk) 상급대주교와 대주교들에게 그러한 동행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교황은 당시 연설의 핵심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신자들에 대한 목자들의 친밀함이 “희망의 살아 있는 물을 가져다주는 수로”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한 친밀함은 “사제들과 신자들이 수없이 만난 후에” 형성되는 것이라며 “사제들은 백성들의 우려를 잘 알고 마음에 새겨야 하고, 보살핌을 받는 신자들은 목자들이 전하는 복음 선포에 온전히 스며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교황은 그 연설문에 나오는 초대 말씀으로 메시지를 마무리했다. “교회가 희망을 그리는 자리, 늘 문이 열린 자리, 위로와 격려를 받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그리스-동방 가톨릭교회’ 스비아토슬라프 셰브추크 상급대주교

드망즈 주교의 일기
1912년

교구지도서 검토를 위한 참사회

2월 2일 금요일

강론, 초 축성과 초의 분배 등 모든 것이 질서 있게 행해졌다.

2월 3일 토요일

사목방문에서 돌아온 이후 매일 7시 20분부터 정오까지, 오후 2시 30분부터 7시까지 나의 사무실에서 교구 지도서의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2월 6일 화요일

베르모렐 신부와 보두네 신부가 오늘 저녁에 도착했다.

2월 7일 수요일

10시부터 정오까지, 그리고 2시 30분부터 4시까지 두 번의 참사회회가 열렸다. 지도서의 1항에서 32항까지 를 토의했다. 쇠약해진 줄리앙 신부가 오늘 저녁에 도착했다.

2월 8일 목요일

어제와 같은 시간에 두 번의 참사회회가 열렸다. 현안의 여러 가지 문제 외에 지도서의 33항에서 49항까지 검토했다. 조항들이 조정되고, 이어 즉시 그 본문을 무세 신부에게 넘겨 그것을 복사하게 했다. 이렇게 동시에 행해진 작업 덕분에 초안은 가능한 한 곧 선교사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고, 한편 그들의 피정 전까지 그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2월 9일 금요일

또 참사회회가 열려 50항에서 80항까지 검토했다.

2월 10일 토요일

또 참사회회를 열고 81항에서 131항까지 검토했다. 가족과 함께 있는 로베르 신부로부터 좋은 소식이 왔다.

2월 12일 월요일

또 참사회회를 열고 132항에서 227항까지 검토했다.

2월 13일 화요일

또 참사회회가 열렸다. 지도서 초안의 토론을 끝냈다.

2월 14일 수요일

현안 문제들을 위해 참사회회가 10에서 정오까지 개최되었다.

피서지에서도 피서드려요!

경북 피서지 주변 성당 안내

| 경주 유적지, 보문 관광 단지

성건본당 ☎ (054)749-8900

성동본당 ☎ (054)776-1840

황성본당 ☎ (054)771-7817

| 구룡포 해수욕장, 대보면 해맞이 광장

구룡포본당 ☎ (054)276-2439

| 대진·고래불·거무역·대신·장사·남호 해수욕장, 백암 온천

강구본당 ☎ (054)733-4003

영덕본당 ☎ (054)733-0511

후포본당 ☎ (054)788-2157

영해본당 ☎ (054)733-6880

| 국립공원 주왕산, 월외 폭포, 약수터

청송본당 ☎ (054)872-2051

진보본당 ☎ (054)874-2397

| 망양·봉평·후정 해수욕장

울진본당 ☎ (054)782-2130

북면본당 ☎ (054)783-1965

| 문경새재

문경본당 ☎ (054)572-0531

| 울릉도, 독도

도동본당 ☎ (054)791-2047

천부본당 ☎ (054)791-6047

| 직지사(김천)

대신본당 ☎ (054)437-1785

평화본당 ☎ (054)434-1785

| 청량산 도립공원

봉화본당 ☎ (054)674-1784

| 칠포·월포·화진 해수욕장

흥해본당 ☎ (054)262-2258

| 포항·송도·북부 해수욕장

덕수본당 ☎ (054)246-6311

죽도본당 ☎ (054)273-3441

| 희방사, 부석사

풍기본당 ☎ (054)636-2204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 말씀과 함께하는 생태발자국 줄이기

페이퍼리스(paperless) 실천하기

영수증, 동의서, 안내문, 보험증서 등을 전자문서로 받기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위원회 제공

말씀의 해 안내지 81호 정답

1. 마라나 타 2. 그리스도, 하느님의 영, 마음 3. 성령 4. ① 2장 15절 ② 6장 16절

※ 81호의 잘못된 문제를 정정합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Q1: 코린토1서 16장 23절 → 22절

Q2: 코린토신자들에게 보내는 첫째 서간 → 둘째 서간

미사 안내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8월 1일(월) 11:00 성동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8월 1일(월) 19:30 꾸르실료교육관
대구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8월 1일(월) 11:00 계산성당	3대리구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8월 6일(토) 10:00 월성성당
복음선교후원회 후원미사	8월 1일(월) 11:00 성모당	한국여기회 회원미사	8월 6일(토) 11:00 앞산밀복카페
포항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8월 1일(월) 11:00 죽도성당	-	-

수도회 성소 | 피정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일시: 8.7(일) 10:00

장소: 서울본부(동소문로)

대상: 만 19~35세

문의: korvocation@columban.or.kr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본원 모임)

일시: 8.13(토) 14:00~8.14(일) 13:00

장소: 성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본원

문의: (010)8353-2323 (문자요망)

osb3@hanmail.net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대상: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문의: 성소국장, (010)8715-2846

고영민 안드레아와 함께하는 피정(무료)

일시: 8.5(금) 18:00~8.6(토) 17:00

장소: 청주교구 초정성령회관

버스운행: 조치원역 앞 신한은행 17:00

청주고속터미널 앞(다이소) 17:20

문의: (010)4400-1344 / (043)213-9103

도미니코회 봉쇄수도원 젊은이 피정

일시: 8.13(토) 15:00~8.15(월) 12:00

대상: 만35세 미만 미혼 남·여

문의: (010)6561-2906

<http://www.dominicocorea.com>

강우일주교님과 함께 걷고 듣는 제주이야기

대상: 개인, 단체 (단체맞춤피정가능)

기간: 9.23~25, 10.18~20, 11.18~20,
12.5~7

장소: 제주 성이시들 피정의집

문의: 한국통합사목센터, (010)5100-3845

기관 | 시설 | 단체 알림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안내

이론화, 미술심리상담사, 우쿨렐레,
제대꽃꽂이, 사군자문인화, 고전무용
프랑스자수, 성가반주오르간, 발성법,
캘리그래피, 장구, 오카리나, 서양화,
정리수납전문가 / 신청: 254-6115

성심복지의원 무료병원 진료 안내

과목: 치과(무료틀니), 한방, 내과,

정형외과, 피부과, 신경과

대상: 수급자 65세 이하(치과), 노인,

노숙자, 이주노동자, 한부모세대 등

문의: 256-9494

대구가톨릭남성합창단 단원 모집

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양하실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 매주 월 19:30, 계산문화관 5층

문의: (010)3529-3898 / (010)3463-5191

가톨릭 요셉발 건강회(발은 제2의 심장)

발을 알면 우리의 건강이 보입니다.

일시: 매주 토요일 14:00~16:00

장소: 가톨릭문화관

(1호선 교대역 3번 출구)

문의: (010)3817-5255

교구 외 | 기타 알림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 모집

기간: 2022.8.22~2023.3.31

대상: 만 15세~40세 남자

내용: 기계가공, CAD/CAM

혜택: 교육비, 기숙사비 무료, 취업지원

문의: (02)828-3600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생 모집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할인: 성직, 수도자, 장애인(전화필수)

문의: (031)360-7635 / (010)7470-7966



박성규 엘리시오

교구 | 대구 알림

노년을 위한 토빛피정

기간: 8.31(수)~9.1(목)
 장소: 한티피정의집(교구청 차량 이용가능)
 대상: 65세 이상 신자
 마감: 8.18(목) / 신청비: 6만5천원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기관 | 시설 | 단체 알림

가톨릭신학원 수강생 모집

철학, 시편과 지혜문학, 성경 첫걸음 등 다양한 강좌가 준비되어 있으며, 성경과 신학에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개강: 8.30(화) / 문의·신청: 660-5105

칠곡가톨릭병원 건강검진센터

칠곡가톨릭병원에서 6대 암검진 및 종합 일반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약 전화: 320-2061
 온라인 예약: www.tcmch.co.kr

전인병원 건강보험검진

위·대장내시경 검사에서 결과까지 당일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670-5959

천주성삼병원 간호사 채용

위치: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190

문의: 간호부, 790-0867(신매동)
<http://www.sungsam21.com>

요한바로로2세 어린이집 조리사 채용
 모집: 조리사 1명(한식조리사 자격증필수)
 보조 조리사 1명

문의: 627-4006 / (010)8563-5248

대구가톨릭대 공기업 NCS 취업캠프

교육: 8.19(금)~20(토) 10:00~17:00
 신청: 8.8(월)~9(화)
 대상: 19~34세 청년 누구나
 문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850-3084
<http://www.cu.ac.kr> (온라인 강의)

부부 둘만의 힐링여행 대구ME주말

390차: 8.12(금)~14(일)
 391차: 9.2(금)~4(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http://dgme.or.kr> 접속 후 신청가능

성모승천대축일 기념 9일기도

일시: 8.4(목) 11:00~8.13(토) 17:30
 목주 1000단 봉헌 및 토요일성령기도회
 장소: 고령 월막피정의집 (주일 제외)
 차량: 설화명곡역 2번 출구 10:00 출발
 (토: 13시 출발) / 문의: (010)9045-0191

교구성체초배회 월레미사

일시: 8.6(매월 첫째 토요일) 10:00 미사

장소: 지산성당
 내용: 성체현시, 강복

바로로딸 영성 프로그램

기도훈련9기: 8.23(매주 화 6주 19:00)
 성경학교: 요한복음(강사: 윤일마 수녀)
 개강: 8.31~11.23(매주 수 12주)
 시간: 10:00~12:00(바로로딸 교육실)
 신청문의: 바로로딸, (010)6681-5185

비대면심리독서모임(9월~10월 8주과정)

심리적 자기이해·영적 성장을 위한 모임
 월요일: 09:00~12:00(8명) / 10.3 쉽
 토요일: 14:00~17:00(8명) / 10.1 쉽
 주최: 베네딕도상담센터(개인상담가능)
 신청: 이데레사 수녀, (010)7241-2236

경산 베네딕도 성경학교 수강생 모집

잡업, 지혜서 (월 10:00, 19:30)
 요한복음과 묵시록 (화 10:00, 19:30)
 루카복음, 사도행전 (수 10:00, 19:30)
 이사야 (수 14:30 / 목 10:00, 19:30)
 개강: 8.29부터 / 문의: (010)3311-2672

2022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 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접수: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8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교), 박필교(율리안나)
 배대옥(임마누엘)
 ☎ (053)255-9077
 010-9447-5193

24시간 요로결석
비엔 비뇨의학과
 피부과
 대표원장 | 전문의 **이윤형 (요셉)**
 삼성브리타시 건너편 올리브원 3F
 Tel. 053 552 2525

Since 1963
가톨릭피부과의원
 59년 역사와 전통의 피부질환 전문병원
 습진 / 무좀 / 아토피 / 건선 / 탈모 / 레이저 시술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15길 28
 ☎ 053) 320-2000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보건복지부
 인공의료기관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김명섭(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

재활정형 전인병원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입구 1688-7667

빛 사랑 후원회원 모집
 월간 <빛>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빛사랑>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가입안내 및 특전
 ▶ 1인 1구와 이상 가능, 1구권당 매월 10,000원
 ▶ 후원회원을 위한 월 미사 봉헌,
 연말 소독공제용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
 ▶ 문의: (053)250-3158, 252-5392

대구연세안과
 백내장 / 노안 / 라식 / 녹내장 / 망막질환
 대표원장 **박중원** (소시모)
 (현 안내대 외래교수)
 안과전문의 서재신(베드로) · 장주현(비비안나)
 수성구보건소 맞은편 대동M타워 4~6층
 ☎ 053) 626-8881~5

바른동물의료센터
 ▶ 365일 24시간 진료
 ▶ 대학병원 석/박사 원장 진료
 ▶ 동물병원내 CT 장비 도입
 ▶ 유튜브 "개알남" 채널 운영
 대구광역시 일서구 의용로 142 (이마트 맞은편)
 대표원장 이세원(루카) 053-571-0075